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갤러리 설치·운영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t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Gallery in Public Libraries

김 영 석 (Young-Seok Kim)*

목 차

- | | |
|----------------------------|-------------------------|
| 1. 머리말 | 4. 공공도서관 갤러리 운영의 필요성 |
| 2. 이론적 배경 | 5.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갤러리 |
| 3. 국내의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설치·운영 현황 | 설치·운영 방안 |
| | 6. 맺음말 |

초 록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갤러리 설치·운영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를 위해 문헌 및 현장 사례 조사,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다. 국내 12개 지자체의 15개, 해외 3개국 11개 도시의 11개 공공도서관 갤러리를 조사·분석하였다. 국내 갤러리 운영 관계자 등 22명을 인터뷰하였고, 이 중 21명(95.5%)이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효율적인 갤러리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도서관의 상황에 따라 큐레이터를 배치한다. 둘째, 최소한 55㎡ 이상 규모의 갤러리를 설치한다. 셋째, 적절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다. 넷째, 가급적 외부 전문가의 심사에 따라 갤러리 대관 요청을 심사하고 공간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관한다. 다섯째, 운영 매뉴얼 및 규정을 만들어 활용한다. 여섯째, 갤러리는 도서관이 직접 운영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find an efficient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gallery in public libraries. A literature review, field case study, and interview method were used. 15 public library galleries in 5 regions in Korea and 11 public library galleries in 11 cities in 3 countries were examined. 22 people were interviewed and 21 (95.5%) of them claimed that a gallery needs to be operated in a public library. The result of the analysis proposes the followings for an efficient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gallery in public libraries: firstly, employing an art gallery curator according to the library's situation. Secondly, establishing a gallery of at least 55㎡ in size. Thirdly, allocating an appropriate budget. Fourthly, if possible, gallery rental requests are reviewed by external experts and a gallery needs to be rented out to the public free of charge. Fifthly, having an operating manual or a regulation. Sixthly, a gallery should be operated directly by the library.

키워드: 공공도서관, 갤러리, 도서관 갤러리, 미술도서관, 그림 전시관

Public Library, Gallery, Library Gallery, Art Library, Art Exhibit Space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skim7@mju.ac.kr / ISNI 0000 0004 6502 7407)

논문접수일자: 2023년 10월 22일 최초심사일자: 2023년 10월 29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11월 5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7(4): 263-287, 2023. <http://dx.doi.org/10.4275/KSLIS.2023.57.4.263>

* Copyright © 2023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머리말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도서관법(시행 2023.8.8.)은 공공도서관을 ‘공중의 정보이용, 독서활동,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마디로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정보센터, 평생교육센터, 문화센터, 레크리에이션센터, 그리고 최근 들어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 기관 및 시설을 뜻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공공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그 역할은 지역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변해 왔다. 조찬식과 조미아(2011, 39)는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은 사회의 요구에 따라 계속 수행되어야 하며 끊임 없이 변화·발전되고 현실에 적응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사회와 시민들의 생활 방식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 안팎에 전문 화가나 일반인의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갤러리를 설치·운영하거나 간단하게 도서관 건물 복도, 열람실 등의 벽면에 그림을 전시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시민들의 여가활동 분야와 취미가 다양해졌는데, 공공도서관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잘 반영하고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결과라고 하겠다.

우리 사회의 변화와 공공도서관의 그림 전시

및 갤러리 설치·운영과의 상관관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붐 세대¹⁾가 은퇴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윗세대보다 학력이 높고 연금이나 자산 등 경제적 여유가 있으며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정보화에 대한 이해가 깊으며 삶의 질과 행복에 관심이 많다.”(서영아, 2021) 그 결과 이들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예술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즉, 악기를 배우고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는 취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이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인해 사회적으로 음악이나 미술 등 예술활동 발표회 및 전시 장소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졌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에는 동네에 그리고 심지어 ‘아파트 단지에도 소규모 갤러리’(김성배, 2023)가 새롭게 문을 여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취미활동을 돕고,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시키고, 더불어 그림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서관에 갤러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해졌다고 하겠다.

실제로 외국은 우리보다 앞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일상의 삶이 여유로워지면서 시민들의 예술활동, 특히 미술 활동을 돕기 위해 일찍부터 공공도서관에 갤러리를 설치·운영해 왔다. 이제 우리나라도 유럽과 북미국가에 이어서 공공도서관에 갤러리를 설치·운영하거나 도서

1) 일반적으로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말한다.

관 내에 그림을 전시하는 경향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에는 미술 활동 및 미술정보 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면서 미술관과 도서관을 융합한 형태의 미술전문 공공도서관까지 건립하고 있다.

윤희운(2010, 31)은 미래의 공공도서관은 기능의 확대와 다양화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즉, '자료수집과 제공을 통한 지역정보센터와 커뮤니티케이션 장소라는 고답적 자기주장으로는 변화하는 사회 사조에 부응하기 어렵다.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노력에 못지않게 새로운 서비스 메뉴와 전략을 발굴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예컨대, 도서관과 예술(음악, 회화)의 만남과 같은 기능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운영은 도서관이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음악, 미술, 꽃, 교육, 관광 등 여러 주제로 특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물이기도 하다. 더불어 도서관의 갤러리 운영은 갤러리와 같은 새로운 시설 운영 및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시민이 도서관을 더 자주 방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도서관 마케팅 전략의 하나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설치·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갤러리 설치·운영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사회와 시민들의 관심사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역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갤러리 설치·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헌조사, 현장 사례조사 그리고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갤러리의 개념 정의,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토대 마련,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설치·운영을 주제로 한 선행연구의 유무 및 그 내용 파악 그리고 해외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문헌조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4개국(국내 15곳, 미국 8곳, 캐나다 2곳, 호주 1곳) 총 26개 사례를 조사하였다. 국내 15곳 중 12곳은 연구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였고, 전라남도에는 있는 3곳은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어 해당 도서관의 사서 3명과 전화를 통해 조사하였다. 국내 1차 조사대상 15곳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 5개 지자체의 6곳, 광주 1곳, 경기도 4개 지자체의 4곳, 충청북도 1곳, 전라남도 1개 지자체의 3곳이다. 국내 15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서관이 직접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거나(10곳),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도서관 건물 내에 갤러리가 있는 경우(2곳) 그리고 기타의 경우(3곳) 등이다. 한편, 1차적으로 조사한 이들 15개 사례 중 <표 4>와 같이 공간 개념의 갤러리가 아니거나, 복도나 열람실 등에 간이로 설치된 서울 1개 지자체의 2곳, 경기도 1곳, 전라남도 1개 지자체의 2곳을 제외한 10개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다. 해외 3개국 11개 도시

의 11곳은 인터넷을 통해 조사하였다.

현장 및 문헌조사를 통해 조사·분석한 국내의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현황은 <표 1>과 같다.

한편, 국내 15곳 1차 조사대상은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법을 이용하여 선정하였다. 즉, 연구자가 알고 있는 대상을 시작으로 담당자 인터뷰 과정에서 소개의 소개를 받아 계속해서 조사대상을 확대하였다.

셋째, 공공도서관에서 갤러리를 어떻게 설치·운영하고 있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총 22명을 인터뷰하였다. 그 구성은 도서관에서 혹은 도서관 내 갤러리에서 그 운영을 담당하는 사서 16명과 행정직원 1명 그리고 큐레이터 3명과 도서관 갤러리나 일반 상업 갤러리를 자주 이용한 경험이 있는 화가 2명이다. 이들 22명 중 13명은 대면으로 나머지 9명은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으로 인터뷰를 하였다.

인터뷰는 23년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각각 30~40분간 이루어졌다. 질문의 내용은 주로 공공도서관 갤러리 설치·운영 현황에 관한

것이고,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인터뷰 참여자의 공공도서관 갤러리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개념 정의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 갤러리'를 갤러리 설치의 기본 요소인 전시대, 레일(rail), 핀조명(pin-spot light), 철와이어(wire, 쇠줄)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림, 서예, 사진 등의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도서관 안팎의 장소 또는 공간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 2>와 같이 일부 분석 대상 도서관의 전시공간이 갤러리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불려도 도서관 갤러리로 통일해서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도서관에서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갤러리라는 명칭 사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있다.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한 큐레이터는 도서관 갤러리는 그림을 판매하지

<표 1> 국내외 조사대상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현황

구분		현장 방문 조사	전화 인터뷰 조사	문헌조사
국내 15곳	1차 조사 15곳	서울 5개 지자체의 6곳 광주 1곳 경기도 4개 지자체의 4곳 충청북도 1곳	전라남도 1개 지자체의 3곳	-
	2차 심층 분석 10곳	서울 1개 지자체의 4곳 광주 1곳 경기도 3개 지자체의 3곳 충청북도 1곳	전라남도 1개 지자체의 1곳	-
해외 3개국 11개 도시의 11곳		-	-	미국 8개 도시의 8곳 캐나다 2개 도시의 2곳 호주 1개 도시의 1곳

〈표 2〉 갤러리 명칭 사용 현황

도서관	① 미술	② 교하	③ 오창호수	④ 남산	⑤ 양천
갤러리 명칭	미술도서관 전시관	교하아트센터	오창전시관	남산갤러리	양천갤러리
도서관	⑥ 마포	⑦ 사직	⑧ 은평구립	⑨ 수지	⑩ 조례호수
갤러리 명칭	마포갤러리	사직갤러리	명칭 없음	북갤러리	헤지면 열리는 미술관

않기 때문에 갤러리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의 주장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와 그 결을 같이하는 듯하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갤러리를 ‘미술품을 진열·전시하고 판매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갤러리(gallery)는 외래어로 영미권에서 들어온 단어이다. 따라서 gallery의 본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gallery를 ‘예술작품 전시 전용 건물 혹은 몇 개의 실(room)이 있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는 ‘미술품을 판매한다’는 의미는 담겨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는 ‘미술품을 전시하는 시설’을 미술관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영미권에서는 미술관을 museum과 gallery로 쓰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영미권의 정의와 어휘 사용 습관에 의하면 gallery는 미술관이기 때문에 미술품을 전시하는 의미로 우리말 미술관 대신에 외래어 갤러리를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 갤러리를 미술관으로 호칭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미술관과 갤러리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고, ‘미술관’은 법률로 정한 용어이고 시설이기 때문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 2023. 8. 8.]은 미술관을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

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더불어 미술관은 동법 제16조(등록 등)에 의해 등록해야 하는 시설이다.

한편, 김지윤(2021)은 우리나라에서 갤러리와 미술관 용어 사용의 혼란 문제를 잘 정리해 주고 있다. 그는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에서 갤러리를 정의하면서 ‘미술관은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경향이 크지만, 갤러리는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더 크다’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갤러리의 최근 경향을 살펴보면, 이전과는 다른 흐름으로 가고 있음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갤러리는 미술품을 거래하는 곳을 의미하는데, 근대 이후로는 공공 미술관도 종종 갤러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갤러리의 종류를 나누기도 하는데, 미술관을 포함하는 전시장을 갤러리라고 부르고, 미술품을 거래하는 곳을 상업 갤러리라고 구분해 명칭하기도 한다’(김지윤, 2021)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운영의 해외 사례에서도 도서관에서 미술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갤러리라고 부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공공도서관에서 미술품을 전시하는 공간을 갤러리라고 부르는 것은 타당하고 하겠다.

한편, 일반적으로 미술품을 진열·전시하는

공간인 갤러리는 그림, 조각, 공예, 서예, 사진 작품 등 다양한 미술품을 진열·전시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갤러리가 전시하는 미술품의 범위를 그림, 서예, 사진 등으로 한정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공간이 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취미 활동이 그림 그리기, 붓글씨 쓰기(서예), 사진 촬영이기 때문에 도서관의 갤러리가 시민들의 이러한 활동의 결과물을 전시하도록 해주는 것이 의미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2 선행연구

선행연구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제에 같은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운영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수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른 관중 도서관을 대상으로한 연구에서 도서관의 갤러리 운영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장혜경(2021)은 사회변화에 따른 학교도서관 공간구성의 개선방안의 하나로 북 콘서트나 작가와의 만남이 가능한 문화공간,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미술작품 및 도서의 원화 전시, 북큐레이션이 가능한 전시공간, 음악이나 영화 감상공간 등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한편, 윤아란(2014)은 국내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미술 분야 문화프로그램 개선 연구를 했다. 그는 자신의 연구에서 미술 관련 문화 강좌와 행사를 공공도서관의 미술 관련 문화프로그램으로 정의하고 미술 관련 문화프로그램의 운영과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도서관이 준비한 각종 문화 강좌와 행사에

이용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연구로 본 연구의 주제인 도서관 갤러리의 설치·운영 개선방안 제안과는 다르다고 하겠다.

한화진, 박승환, 최무혁(2004)은 우리나라 서울과 대구의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이용자 공간의 공간구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외 공공도서관의 미술관 설치·운영 사례를 일부 소개하고 있고, 더불어 서울과 대구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공간으로서 전시실의 유무와 그 유형의 현황을 소개하였다. 이 연구 역시 본 연구의 주제인 갤러리 설치·운영에 대한 언급 및 서술은 매우 제한적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주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진다고 하겠다.

3.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설치·운영 현황

국내외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4개국에 걸쳐 총 26곳의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인터넷을 통해 미국 여덟 곳, 캐나다 두 곳, 호주 한 곳 등 총 11곳의 해외 사례를 조사하였다. 국내의 경우 1차 조사한 15곳 중 <표 4>와 같이 10곳(①~⑩)을 대상으로 심층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해외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운영 사례 및 특징

3.1.1 미국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운영

미국 8개 도서관의 갤러리 운영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각각의 특징은 <표 3>과 같다.

조사결과 8개 도서관 모두 갤러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그림을 전시·판매하는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갤러리’ 명칭과는 달리 그림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갤러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Weston도서관, Glenrock도서관, Watertown도서관은 갤러리에서 그림을 전시할 때 그림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Glenrock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의 친구(Friends of the Library)²⁾가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림 판매시 20%의 수수료를 도서관의 친구에게 지불하고 있다. 반면에 Austin도서관의 경우는 그림 전시 때 판매를 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미국 공공도서관의 갤러리는 그 운영이 좀 더 개방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Batavia도서관은 갤러리 운영뿐만 아니라 기금을 이용해서 그림을 직접 구입하고 전시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갤러리 규모는 공공도서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Austin도서관은 825㎡로 가장 크고, Peoria도서관은 그다음으로 694㎡이고, Lexington 중앙도서관은 366㎡이다. 반면에 Weston도서관은 12.2㎡이고 Lexington 분관은 9.5㎡에 불과하다. 한편, 도서관 갤러리의 대관 기간은 2주에서 한 달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도서관의 갤러리 운영에서 눈여겨볼 사항은 Glenrock도서관은 도서관의 친구에게 갤러리 운영을 맡기고 있고, Watertown도서관은 갤러리 운영을 위해 큐레이터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방식은 사서들의 업무를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갤러리를 운영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도 미술도서관은 두 명의 큐레이터를 두고 있고, 조례호수도서관은 정규직 큐레이터를 두고 있지는 않지만 큐레이터의 도움을 받아 갤러리의 기획전시를 하고 있다.

〈표 3〉 미국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운영 사례

공공도서관	갤러리 명칭 사용 여부	도서관 갤러리의 특징
Weston Library	O	대관 무료, 대관 1달, 전시작품 판매 가능, 전시벽의 길이 12.2㎡
Batavia Library	O	기부금을 받아 유명 작가의 작품 도서관에서 구입 및 전시
Glenrock Library	O	대관 무료, 도서관의 친구가 운영, 그림 판매시 20% 수수료를 도서관의 친구에게 지불
Peoria Library	O	도서관이 대관 신청 심사, 갤러리 규모 694㎡
Watertown Library	O	도서관 2층에 위치, 대관 기간 약 한 달, 작품 판매 가능(가격표 붙여야 함), 큐레이터 있음
Metuchen Library	O	대관 기간: 2주 혹은 4주, 유명한 신진 작가에게 대관
Lexington Library	O	3개(중앙관 366㎡, 분관 2개: 하나의 갤러리 벽의 길이 9.5㎡)의 갤러리 운영
Austin Library	O	도서관 2층에 위치, 규모: 825㎡, 작품 판매하지 않음

2) 공공도서관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돕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시민·이용자단체.

3.1.2 캐나다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운영

- Belleville Public Library & John M. Parrott Art Gallery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인구 약 5만명의 소도시 벨빌에 있는 벨빌도서관은 건물 내에 3개의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벨빌도서관의 명칭 뒤에는 John M. Parrott Art Gallery가 붙는다. 이 도서관은 1973년부터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고 한 명의 큐레이터가 근무하고 있다. 3개의 갤러리는 도서관 3층에 나란히 인접하여 자리하고 있다. 갤러리 1은 가장 크고, 갤러리 2는 중간 크기이고, 갤러리 3은 한 화가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서 Manly MacDonald Gallery로 부르고 있다.

도서관은 화가 Manly MacDonald의 그림을 기증받고 있고, 더불어 그의 작품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 도서관 이용자와 시민들에게 특별 기부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 갤러리는 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는 그림을 잘 보존하고 수선하기 위해 그림에 대한 후원을 받고 있다. 후원 방식은 세 가지로 동(Bronze)후원은 연 50~100달러, 은(Silver)후원은 100~200달러, 금(Gold)후원은 200달러 이상을 후원하는 것이다.

- Toronto Public Library

토론토시의 중앙도서관과 12개 분관은 각각 전시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참고도서관(Reference Library)에 있는 TD Gallery가 핵심 전시관이다. TD갤러리는 도서관 1층에 있고 일반인에게 한 달 단위로 대관하고 있다.

대관은 토론토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있는 사람 혹은 전에 토론토도서관(분관 포함)에서 한 번도 전시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고 있다. 갤러리에서 전시는 조각 작품을 제외하고 사진을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다. 전시신청을 하면 예술선정위원회(Art Selection Committee)가 심사한다. 대관은 유료인 것으로 사료되는 데 도서관 공간 대관규정(Community and Event Space Rental)에 의해 비영리단체 및 개인에게는 시간당 약 22,780원(23.24달러)³⁾를 받고 있다. 한편, 도서관 갤러리에서 전시되는 그림의 판매를 허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론토도서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갤러리 운영을 위해 '미술작품 전시공간 이용정책(Use of Library Space for Art Exhibits Policy)'과 '미술작품 전시를 위한 일반지침(General Guidelines for Art Exhibits Policy)'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3.1.3 호주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운영

- Melbourne Public Library

조사 결과 호주 멜버른시에는 두 개의 도서관이 각각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도서관인 시티도서관(City Library)은 약 46.7㎡ 크기의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고, 다른 분관은 한쪽 벽이 13m, 다른 한쪽 벽이 11m인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도서관의 갤러리는 우리나라나 미국 공공도서관과 달리 유료 대관이고 대관료는 한 달에 약 839,660원(965달러)⁴⁾이다.

3) 2023년 8월 14일 우리은행 기준환율 기준(980.03원 X 23.24 캐나다 달러)

4) 2023년 8월 14일 우리은행 기준환율 기준(870.11원 X 965 호주 달러)

3.1.4 해외 공공도서관 갤러리 운영의 특징
 해외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운영을 조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갤러리 운영을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 화가의 작품을 수집하고, 더불어 작품 구입·보존을 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부금을 요청하고 있다.

둘째, 특별 기금을 이용해 그림을 직접 구입·전시하고 있다.

셋째, 갤러리를 개인이나 단체에게 대체로 유료로 대관하고 있다.

넷째, 갤러리에서 전시되는 그림의 판매를 전시 기간 중에 허용하고 있다.

다섯째, 도서관 갤러리에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여섯째, 갤러리 대관 정책과 전시를 위한 지침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3.2 국내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설치·운영 현황과 문제점

국내 사례 분석의 경우 '2.2 선행연구'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 주제와 유사한 연구가 없고, 본 연구가 첫 시도인 만큼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운영과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리적 환경 등 시설 운영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즉, 공공도서관 내 갤러리 설치의 유형과 설치시기, 설치된 갤러리의 규모와 도서관 내 위치, 갤러리 운영 예산과 대관료, 갤러리 대관 및 미술작품 전시 기간 그리고 갤러리 운영 매뉴얼 및 규정 유무 등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국내 10곳의 심층 분석 대상 갤러리에 대한 현황 조사는 해당 갤러리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3명의 큐레이터와 7명의 사서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의해 이루어졌다. 여기서 말하는 10명은 본 연구에서 인터뷰한 총 22명의 일부이다. 한편, 인터뷰를 통해 얻을 수 없는 일부 데이터는 연구자가 직접 눈으로 보고 실측하여 조사하였다. 최종 조사·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2.1 설치 형태로 구분한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유형

국내 15개 공공도서관의 갤러리를 조사한 결과 갤러리 설치 형태에 따라서 <표 4>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 기본형(A~E형)과 기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첫째, A형으로, 처음부터 미술작품 전시 등 미술 활동 지원과 미술 전문서비스 제공을 염두에 두고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고 그 안에 갤러리가 설치된 경우로 여기에 해당하는 곳이 의정부 미술도서관(①)이다. 2019년 11월 개관한 미술도서관⁵⁾은 '공공도서관의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술관의 역할까지도 수행하는 공공플랫폼으로 미술관과 도서관을 융합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형을 '도서관·갤러리 융합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둘째, B형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때 한 층에 <표 6>과 같이 상당히 큰 규모의 전시공간을 마련한 경우로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파주 교하도서관(②)과 청주 오창호수도서관(③)이다.

5) 도서관 연면적 6,565㎡

〈표 4〉 설치 형태로 구분한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유형

유형	설치 방식	도서관 갤러리	
A형	최초 개관할 때 미술관과 공공도서관을 융합한 형태로 건립됨	①	
B형	최초 개관할 때 도서관의 한 층을 갤러리로 만듦	② ③*	
C형	최초 개관할 때는 갤러리가 없었고 후에 별도의 공간에 설치	④ ⑤ ⑥ ⁶⁾	⑨**
D형	최초 개관할 때는 갤러리가 없었고 후에 복도 등에 간이 갤러리 설치	⑦ ⑧ ⑩	⑫
E형	최초 개관할 때는 갤러리가 없었고 후에 도서관 건물 밖에 설치	⑩	
기타	도서관 안팎에 갤러리 공간은 없고 관내 벽에 그림을 걸어두는 방식	⑬ ⑭ ⑮	

① ~ ⑩번 갤러리 심층 분석, ⑪ ~ ⑮번 갤러리 간단한 조사

* ③번 도서관의 갤러리는 옥외 전시실도 가지고 있음.

** ⑨번 도서관의 갤러리는 C형과 D형의 복합형으로 최초 도서관 개관할 때는 없다가 후에 별도의 공간도 아니고 복도도 아닌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홀의 한쪽(벽)에 설치됐음.

그런데 이들 두 도서관의 갤러리는 도서관 개관 때부터 외부 단체 및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교하도서관 3층에 있는 갤러리인 교하아트센터는 2008년부터 (사)한국미술협회 파주지부에서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다. 오창호수도서관 내 2층에 있는 갤러리인 오창전시관은 2016년부터 청주시립미술관에서 분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이 갤러리의 정식명칭은 청주시립미술관 오창전시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B형을 ‘독립형 전문 갤러리’로 명명하고자 한다.

한편, 이들 B형 갤러리 설치의 차이는 교하아트센터는 처음에 도서관의 부속 공간으로 설치된 것인데 반해 오창전시관의 경우는 처음부터 도서관과는 별개의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한마디로 오창전시관과 오창호수도서관은 복합건물형태로 지어진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가 이곳을 방문해서 느낀 점은 이 두 시설이 이질감 없이 하나의 시설 혹은 기관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오창전

시관이 다섯 개 층으로 구성된 오창호수도서관의 2층에 자리잡고 있고, 오창전시관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큐레이터가 그 소속이 도서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서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C형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때는 갤러리 공간이 없었으나 후에 갤러리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도서관의 일정 공간에 갤러리를 설치한 경우로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남산도서관(④), 양천도서관(⑤), 마포평생학습관(⑥)⁷⁾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C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이기 때문에 ‘도서관 갤러리 일반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

넷째, D형으로 도서관에서 갤러리 운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도서관 공간이 충분치 않아 내부 공간에 적절한 규모의 갤러리를 설치하지 못하고 도서관 복도 및 통로 등에 전시대 및 조명을 설치하여 갤러리로 이용하는 경우로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서울 은평구립도서

6) 서울시교육청 소속의 평생학습관

7) 명칭이 평생학습관이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통계에서 도서관 수에 포함되어 있고 도서관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대상에 포함하였음.

관(⑦), 광주광역시 사직도서관(⑧), 고양시 아람누리도서관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D형을 ‘복도형 갤러리’로 명명하고자 한다.

한편, C형과 D형의 혼합형이 있다. 이 유형의 경우 C형처럼 완전히 별도의 갤러리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복도도 아닌 곳, 즉 이용자 공간 한쪽에 갤러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로 용인 수지도서관(⑨)과 순천 연향도서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C·D형의 혼합형을 ‘이용자 공간내 갤러리’로 명명하고자 한다.

다섯째, E형으로 도서관 건물 밖에 갤러리를 설치한 경우다.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순천 조례호수도서관(⑩)으로 컨테이너형 가건물을 도서관 건물 밖에 설치하고 그 안에 갤러리를 설치·운영하는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E형을 ‘도서관밖 갤러리’로 명명하고자 한다.

여섯째, 기타 유형인데, 이 경우는 도서관 안팎에 공간 개념의 갤러리는 없다. 그런데 도서관 내부의 여러 벽에 진품 그림을 걸어둔 사례로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서울 금천구의 독산도서관(⑪)과 시흥도서관(⑫) 그리고 순천의 삼산도서관(⑬)이 있다. 금천구의 경우 도서관이 속한 금천문화재단과 금천미술협회가 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부터 6개월에 한 번씩 각각 두 점의 그림을 관내 독산과 시흥 도서관에 설치·교체해 주고 있다.

이 기타 유형의 경우 도서관 안팎에 갤러리 공간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는 진품 그림 두 점을 6개월마다 교체하는 형태로 도서관에 전시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갤러리 운영의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언급하였다. 다만 이 기타 사례는 공간 개념의 갤러리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순천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설치·운영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순천시는 여타 지자체와 다르게 도서관 갤러리를 매우 활발하게 그리고 독특하게 운영하고 있다.

첫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순천시 공공도서관은 세 가지 유형, 즉, C·D혼합형, E형 그리고 기타 유형의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둘째, 기타 유형의 갤러리를 운영하는 삼산도서관은 320여점의 그림을 소장하고 있고, 매년 2~30여점의 그림을 구입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도서관 내에 전시하고 있다. 더불어 이 도서관은 그림 수장고를 가지고 있다.

셋째, 삼산도서관은 시민들에게 그림을 두 달씩 무료로 대출해주고 있다.

3.2.2 갤러리 설치 시기

조사대상 도서관의 갤러리 설치 시기를 살펴보면 남산도서관의 경우 1986년에 처음으로 지 금과 같은 규모(184㎡)의 전시실을 설치하였고, 2001년에 ‘목멱전시실’이라는 공식 명칭을 갖게 되었으며, 2014년 ‘남산갤러리’라는 현재의 명칭을 갖게 되었다.

마포평생학습관은 2002년 이전에 설치·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담당 사서에 의하면 ‘학습관 자체 업무기록관리시스템을 검색한 결과 2002년에 갤러리가 운영된 기록이 발견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해당 시스템은 2002년까지의 내용만 검색되고 그 이전 것은 검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갤러리가 운영됐어도 검색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2002년 이전에

도 갤러리가 운영됐을 수 있다'고 하였다.

양천도서관은 동 도서관의 갤러리를 자주 이용해 전시를 한 경험이 있는 지역 화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2009년에 설치된 것으로 사료된다. 교하도서관과 오창전시관은 도서관 개관 연도인 2008년과 2016년에 각각 갤러리가 설치되었다. 사직도서관은 동 도서관 갤러리 운영 담당자에 의하면 '2018년에도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전에 갤러리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였다. 담당자와 인터뷰한 결과 은평도서관에는 2021년에 설치되었고, 조례호수도서관에는 2020년 그리고 수지도서관에는 2022년에 갤러리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의 현황을 통해 봤을 때 <표 5>와 같이 2000년 이전에 갤러리가 설치된 곳은 한 곳뿐이고 나머지는 그 이후이다. 한편, 200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설치된 곳은 세 곳이고 나머지 6곳은 모두 2016년 이후에 설치되어 대체로 최근 6~7년 사이에 갤러리가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3.2.3 갤러리 규모 및 도서관 내 위치(층)
도서관 갤러리의 규모를 분석한 결과 <표 6>

과 같이 오창호수도서관 내 오창전시관의 규모(484㎡)가 가장 크다. 이 전시관의 경우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갤러리 대관자의 유료 대역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간을 두 개로 나누어 분할 대관을 하고 있다. 오창전시관은 전시실 외에 그림 수장고(84㎡)와 옥외 전시실(994㎡)을 따로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 큰 갤러리를 가지고 있는 곳은 의정부 미술도서관(422㎡)이다. 이 도서관은 별도의 그림 수장고(약 69㎡)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 큰 갤러리가 있는 곳은 교하도서관(283㎡)이다. 이들 세 도서관 내 갤러리는 미술전문 큐레이터가 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네 번째로 큰 갤러리를 가지고 있는 곳은 남산도서관(184㎡)이고, 그다음은 양천도서관(84㎡), 그다음은 마포도서관(56.3㎡)이다. 이들 세 도서관은 교육청 소속으로 도서관의 연면적⁸⁾이 큰 만큼 별도의 다소 큰 갤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사직도서관(43㎡), 수지도서관(36㎡), 조례호수도서관(28.8㎡), 은평구립도서관(13㎡)은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갤러리를 설치·운영

<표 5> 갤러리 설치 연도

도서관	① 미술	② 교하	③ 오창호수	④ 남산	⑤ 양천
설치 연도	2019	2008	2016	1986* 2014**	2009
도서관	⑥ 마포	⑦ 사직	⑧ 은평구립	⑨ 수지	⑩ 조례호수
설치 연도	2002	2018년 이전***	2021	2022	2020

* 최초로 전시 공간을 마련한 연도
** 현재의 갤러리 이름을 갖게 된 연도
*** 2018년에도 운영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사료 되나 정확한 시기는 확인이 어렵다고 함

8) 남산도서관 연면적: 9,410㎡, 마포평생학습관 연면적: 9,716㎡, 양천도서관 연면적: 6,864㎡

〈표 6〉 갤러리 규모 및 도서관 내 위치(층)

도서관	① 미술	② 교하	③ 오창호수	④ 남산	⑤ 양천
규모(㎡)	422	283	484(전체) 242(분할시)	184	84
위치(층)	1층	3층	2층	1층	2층

도서관	⑥ 마포	⑦ 사직	⑧ 은평구립	⑨ 수지	⑩ 조례호수
규모(㎡)	56.3	43	13	36	28.8
위치(층)	1층	1층	2층	1층	도서관 밖

하는 경우가 아닌 만큼 갤러리의 규모가 크지 않음을 수 있다.

도서관 내 갤러리의 위치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갤러리는 가급적이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건물의 저층이나 입구 혹은 로비에 설치돼야 많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방문·관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서관 내 갤러리의 위치를 살펴본 결과 10개관 중 5곳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1층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층에 설치된 곳은 3개관이고, 1개관은 3층에 설치되어 있다. 한편, 조례호수도서관의 경우는 도서관 건물 밖 야외 정원에 설치되어 있다.

3.2.4 갤러리 운영 예산 및 대관료

갤러리 운영을 위한 별도 예산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서관 혹은 갤러리마다 그 현황이 매우 달랐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대상 10곳 중 7곳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3곳은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다.

예산이 편성된 7곳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에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곳은 오창전시관으로 약 3억원이다. 이 예산에는 기획전시 비용, 운영비, 인턴 활동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다음으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곳은

미술도서관으로 2억 5,000만원이다. 동 도서관의 전시관은 1년에 3~4번씩 기획전시를 하는데 1회당 약 7,000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였다. 교하아트센터는 3,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서는 큐레이터 인건비까지 포함되어 있다. 조례호수도서관은 2,07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에는 큐레이터 활동비, 작가 그림 운송비 등이 포함된 것이다. 수지도서관은 2022년에 990만원, 2023년에 1,320만원이 편성되었다. 한편, 남산도서관의 경우는 소액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갤러리 유지보수와 대관 신청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심사 수당 명목으로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반면에 양천도서관, 마포평생학습관, 은평구립도서관은 갤러리 운영을 위한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조사대상 도서관 갤러리의 관외 대관 여부와 대관이 유료인지 무료인지를 조사하였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10개 갤러리 중 미술도서관, 은평구립도서관, 수지도서관, 조례호수도서관 등 4개 갤러리는 일반인에게 대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관하는 6개 갤러리 중 5곳은 무료 대관이고 유일하게 오창전시관만 유료 대관이다.

흥미 있는 사실은 교하아트센터와 오창전시관은 둘 다 도서관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

〈표 7〉 갤러리 운영 예산 및 대관료

도서관	① 미술	② 교하	③ 오창호수	④ 남산	⑤ 양천
운영 예산	2억 5,000만원	3,800만원 내외 (인건비포함)	약 3억원	100만원 내외	연간 예산 없음
대관료	대관 없음	무료	유료	무료	무료

도서관	⑥ 마포	⑦ 사직	⑧ 은평구립	⑨ 수지	⑩ 조례호수
운영 예산	연간 예산 없음	소액의 택배비*	연간 예산 없음	1,320만원	2,074만원
대관료	무료	무료	대관 없음	대관 없음	대관 없음

* 그림책 원화 전시 후 원화를 출판사에 반품하기 위해 소액의 택배비가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음.

고 외부 미술관련 전문단체 및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하아트센터는 무료 대관인데 반해 오창전시관은 유료라는 사실이다. 교하아트센터의 경우 큐레이터 인건비를 포함하여 갤러리 운영 예산 전체를 파주시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무료로 대관하고 있다고 하였다.

오창전시관의 경우 갤러리 전체(484㎡)를 대관할 수 있고 분할해서 반만(242㎡) 대관할 수 있다. 대관료는 1일 기준 1㎡당 200원이다. 따라서 대관 허용 기간 14일간 전체를 대관할 경우 대관료는 총 1,355,200원이고, 반만 분할 대관을 할 경우는 677,600원이다. 여기에 갤러리 공간의 냉난방비는 별도인데, 냉방비는 1회 2시간 기준 6만원이고, 난방비는 9만원이다. 갤

러리 대관료보다 갤러리 대관에 따른 냉난방비가 훨씬 비싸다. 하지만 담당 큐레이터에 의하면 갤러리 대관 기간은 10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만 허용되기 때문에 12월을 제외하고는 냉난방을 할 필요가 없어 대관료 외 추가 비용은 거의 들지 않을 거라고 하였다.

3.2.5 갤러리 대관 및 미술작품 전시 기간

갤러리를 일반 개인 및 단체에게 대관하는 곳은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분 대관을 포함하여 조사대상 10곳 중 6곳이고, 4곳은 대관하지 않고 있다. 6곳 중 오창전시관은 부분적으로 대관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2주씩 총 4회(10월 4일 ~ 12월 7일)만 대관하고 있다. 한

〈표 8〉 갤러리 대관 및 미술작품 전시 기간

도서관	① 미술	② 교하	③ 오창호수	④ 남산	⑤ 양천
대관 여부	하지 않음	대관	부분 대관	대관	대관
대관 기간	4개월	6일*	2주**	1주	1주

도서관	⑥ 마포	⑦ 사직	⑧ 은평구립	⑨ 수지	⑩ 조례호수
대관 여부	대관	대관***	하지 않음	하지 않음	하지 않음
대관 기간	2주	1달	교체 없음	분기별	1달

* 첫날 설치일, 마지막 날 철거일 제외

** 첫날 설치일, 마지막 날 철거일 포함

*** 일반인의 대관이 없는 경우 도서관이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전시를 하고 있음

편, 대관하지 않는 4곳 중 미술도서관과 조례호수도서관의 경우 일반 작가의 작품을 갤러리에 전시하고 있다. 미술도서관의 경우 기획전 형태로 작가를 섭외하여 섭외된 작가의 작품을 1년에 3~4번씩 전시하고 있고, 조례호수도서관의 경우도 매달 섭외된 작가의 작품을 한 달 주기로 전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술도서관과 조례호수도서관은 일반인의 신청을 받아 대관을 하지는 않지만 갤러리가 일반 작가의 작품을 전시해줌으로써 공공도서관 갤러리의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에, 은평구립도서관과 수지도서관의 경우는 갤러리를 대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지 않고 있다. 2023년 8월 현재 두 도서관은 외국 작가의 복제 그림을 전시하고 있다.

갤러리 대관은 곧 미술작품의 전시 허용 기간을 의미한다. 부분 대관을 포함하여 갤러리를 대관하는 6곳의 대관 기간을 살펴보면 사직도서관이 한 달로 가장 길다. 그 이유는 갤러리 대관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담당자에 의하면 일반인의 대관 신청은 2022년도에 한 건, 2023년의 경우 8월까지 한 건이라고 하였다.

오창전서관과 마포도서관은 2주인데, 이것은 사직도서관보다 대관 신청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남산도서관과 양천도서관은 더 짧은 1주일이고, 교하도서관도 6일로 짧다. 흥미로운 사실은 남산도서관은 대관 기간이 1주일로 너무 짧아 갤러리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가 가중되어 2024년부터 2주로 늘리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다. 반면에 양천도서관은 2022년까지 대관 기간이 2주였으나 대관 신청자가 많아 신청자 모두에게 대관 기회를 주기 위해 2023년부터 1주일로 변경했다고 하였다. 그 결과 갤러리 운영 담당자의 업무가 매우 가중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갤러리를 대관하지 않는 4곳의 경우 미술작품의 전시 기간은 미술도서관이 4개월, 수지도서관이 3개월이고, 조례호수도서관이 1개월이다. 은평구립도서관의 경우 현재 교체 없이 계속 전시하고 있다.

3.2.6 갤러리 운영 매뉴얼 및 규정 유무

갤러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매뉴얼이나 규정이 필요하다. <표 9>와 같이 조사대상 갤러리 10곳 중 4곳이 운영 매뉴얼이나 규정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산과 양천 도서관은 '갤러리 운영 매뉴얼'을 가지고 있는데 양천도서관은 남산도서관의 것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했다. 의정부미술도

<표 9> 갤러리 운영 매뉴얼 및 규정 유무

도서관	① 미술	② 교하	③ 오창호수	④ 남산	⑤ 양천
매뉴얼 및 규정 유무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도서관	⑥ 마포	⑦ 사직	⑧ 은평구립	⑨ 수지	⑩ 조례호수
매뉴얼 및 규정 유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 자체 홈페이지와 네이버 카페를 통해 갤러리 운영 및 대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운영 계획서'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음

서관은 2023년 현재 운영 규정⁹⁾을 가지고 있는데 최초로 2020년 4월 1일부터 만들어 시행하였다. 오창전시관은 자관만을 위한 운영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모기관인 청주시립미술관의 운영 규정¹⁰⁾을 따르는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마포도서관, 사직도서관, 은평구립도서관, 수지도서관 등은 운영 매뉴얼이나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평구립도서관이나 수지도서관은 대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 매뉴얼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교하도서관은 운영 매뉴얼은 없지만 자체 홈페이지와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갤러리 운영 및 대관 관련 규정과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조례호수도서관은 자체 '운영 계획서'를 만들어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남산과 양천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갤러리 운영 매뉴얼'은 1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부 내용은 갤러리 운영 목적, 갤러리 대관의 정의, 갤러리 운영시간, 휴관, 대관의 범위, 대관 절차, 대관의 선정, 대관자의 의무 및 손해 배상, 대관의 제한, 규정 외 사항 등이다. 미술도서관의 현재 운영 규정[시행 2022.09.16.]은 제1장 총칙, 제2장 관람 및 운영, 제3장 전시관 운영위원회, 제4장 소장품 구입 및 관리 등 총 23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남산 및 양천 도서관의 운영 매뉴얼은 두 도서관이 갤러리를 대관하기 때문에 대관과 관련된 실무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반면에 미술도서관의 운영 규정은 주로 전시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운영 매뉴얼이나 규정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나 그렇지 않은 도서관의 경우도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갤러리 운영 업무와 관련된 여러 서식을 만들어 이용하고 있다. 그 서식은 대관(허가)신청서, 전시계획서, 전시실적서, 대관 의무 준수 서약서, 대관 결과보고서, 대관 포기 신청서, 대관심사표 등이다.

3.2.7 국내 공공도서관 갤러리 설치·운영의 문제점

국내 공공도서관 갤러리 10곳을 대상으로 그 설치·운영을 조사·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첫째, 갤러리가 도서관 건물 내에 자리함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 주체가 도서관이 아닌 외부 단체나 기관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두 시설 운영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없다.

둘째, 미술작품 전시공간이 55㎡ 이하로 협소하거나 도서관의 복도, 열람실, 건물 밖 등과 같이 간이 시설형태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이 4곳이나 되었다.

셋째, 갤러리 운영 즉, 갤러리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은 곳이 4곳이나 되었다. 이 경우 갤러리 시설의 노후화가 발생한다.

넷째, 갤러리 공간을 일반 시민들에게 대관하지 않는 곳이 4곳이나 되었다. 이 경우 도서관이 일반 시민들의 작품 전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9) 정식명칭: 의정부미술도서관 전시관 운영 규정 [시행 2022.09.16.]

10) 정식명칭: 청주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2.11.4.], 청주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06.9.]

다섯째, 갤러리 대관 기간이 한 주인 곳이 3곳이었는데, 이 경우 갤러리 운영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고, 전시자의 작품을 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게 된다.

여섯째, 갤러리 운영 매뉴얼이나 규정이 없는 곳이 5곳이나 되었다. 이 경우 관련 업무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4. 공공도서관 갤러리 운영의 필요성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운영 및 이용과 관련된 사람 총 22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내 갤러리 설치·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리커드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표 10>과 같이 평균은 4.2로 높게 나타났고, 조사대상 총 22명 중 1명을 제외한 21명(95.5%)이 도서관 내에 갤러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명 중 7명(31.8%)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7명 중 4명은 큐레이터이거나 화가이다. 따라서 특히 미술 분야 종사자들이 도서관 내 갤러리 설치·운영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화진, 박승환, 최무혁(2004, 107)은 '최근 유럽과 일본에서 계획된 도서관들은 교육 및 연구기능 이외에도 극장, 공연장, 갤러리 등의 공

연 및 전시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 예로 프랑스의 님스 미디어테크(Nimes Mediatheque)는 미술관, 미디어도서관, 공공도서관, 극장의 복합적 기능을 가지고 지식과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님스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 되었고, 일본의 센다이 미디어테크는 새로운 도서관과 아트갤러리의 개념으로 도서관의 기능과 함께 아트갤러리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한화진, 박승환, 최무혁, 2004).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매년 많은 수의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고 더불어 공공도서관이 복합화되는 과정에서 도서관에 더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고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최근에 새롭게 부각되는 공간과 서비스가 바로 미술전시관과 미술서비스이다. 그 예로 2008년 파주 교하도서관은 3층에 갤러리가 설치된 채로 개관하였고, 2016년 오창호수도서관은 도서관 건물 2층에 갤러리가 자리잡은 채로 개관하였다. 2019년에는 미술관과 도서관이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의정부 미술도서관이 개관하였다.

이처럼 국내외에서 도서관 내에 갤러리 설치 사례가 늘고 있는데, 도서관에서 갤러리를 설치·운영하는 의미와 효과는 첫째, 전문 미술작가의 작품 전시 및 판매 기회 제공, 둘째, 아마추어 미술작가의 작품 소개 기회 제공, 셋째, 작가들의 작품 전시를 통해 지역사회 미술활동

<표 10> 공공도서관 내 갤러리 설치·운영에 대한 필요성 인식(N=22)

구 분	매우 불필요하다	불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
	빈도(%)	빈도(%)	빈도(%)	빈도(%)	빈도(%)	
갤러리 설치·운영의 필요성 인식	0(0.0)	1(4.6)	0	14(63.6)	7(31.8)	4.2

활성화, 넷째, 시민들의 미술작품 감상을 통한 문화향유 및 미술활동 참여 의지 고취, 다섯째, 도서관에서의 미술작품 전시를 통해 도서관 분위기를 편안하고 세련된 공간으로 변화시키는 것 등이다.

이상과 같이 공공도서관에 갤러리가 설치·운영됨으로써 여러 가지 의미와 효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도서관에 갤러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갤러리 설치·운영 방안

국내 공공도서관 갤러리의 설치·운영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해외 공공도서관 갤러리 운영의 특징을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갤러리 설치·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5.1 담당 인력

장기적으로 도서관 갤러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정규직 큐레이터를 채용하도록 한다. 만약 정규직 큐레이터를 두는 것이 어렵다면 조례호수도서관의 사례처럼 시간제로 근무하는 큐레이터를 두는 방법도 있겠다. 다른 방식으로는 문체부에서 공공도서관에 개관연장 사업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처럼 갤러리를 운영하는 도서관을 대상으로 시간제 큐레이터를 고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처럼 도서관 갤러리 운영에 전문 큐레이터

를 두는 것은 갤러리 운영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더불어 갤러리 운영에 따른 사서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5.2 시설 및 갤러리 명칭 부여

갤러리 설치의 가장 기본 요소는 핀조명과 레일, 작품을 거는 줄(와이어) 그리고 전시대(벽면)이다. 갤러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본 요소가 가장 먼저 잘 갖춰져야 한다.

갤러리는 일정 규모 이상이 된다면 좋을 것이다. 국내 공공도서관 갤러리의 경우 가장 큰 것은 484㎡에서 가장 작은 것은 13㎡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규모가 아니라 갤러리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활발히 운영하는 것이다. 순천시의 경우 조례호수도서관 내에 충분한 공간이 없자 도서관 밖에 컨테이너 가건물을 설치하여 갤러리를 운영하고, 월 단위로 지역 작가의 미술작품을 교체 전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갤러리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연구자가 10여 곳의 갤러리를 직접 방문하여 살펴본 결과 마포도서관의 규모(56.3㎡) 정도도 작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의 도서관 공간 내에서 별도의 갤러리를 설치하기 어렵다면 수지도서관처럼 이용자 공간의 한쪽 혹은 양쪽 벽을 활용하여 갤러리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갤러리는 많은 이용자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의 안전인데 이점을 담보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갤러리를 설치·운영하는데 있어 추가적으

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갤러리에 적절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도서관과 사용자 혹은 시민 간에 소통이 원활해지고, 갤러리 사용자가 도서관 갤러리에서의 전시를 대외적으로 자신의 공식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위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심층분석한 10곳 중에서 남산갤러리 등 5곳은 갤러리는 명칭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전시관(2곳), 미술관, 아트센터라 부르고 있고 한 곳은 명칭이 없다.

5.3 운영 예산

갤러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담당자 인건비를 제외하고 크게 세 가지 즉, 운영 예산, 시설 관리 예산, 수당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대체로 갤러리 운영이 도서관 내에서 별도의 조직 구성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산이나 양천도서관의 '독서진흥과' 혹은 마포평생학습관의 '평생학습과'처럼 과에 소속된 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갤러리 운영을 위해 과 운영 예산과는 다른 별개의 운영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도서관의 갤러리는 한두 주 혹은 한 달 간격으로 시민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그림 설치, 전시 그리고 철거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로 갤러리의 전시 환경이 훼손될 수 있고 조명 등에 의해 흰색 벽면에 변색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좋은 환경과 시설을 유지·제공하기 위해서는 1년에 한두 번씩 주기적으로 시설 유

지보수를 해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시설 관리 예산이 필요하다.

한편, 현재 갤러리를 운영하는 많은 도서관에서 갤러리 대관 요구가 대관 가능 기간보다 많아 신청서 심사를 통해 선정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자가 심사하기보다는 미술 작가나 단체 혹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따라서 이렇게 개인이나 단체에 심사를 의뢰할 경우 심사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수당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기타 도서관이 그림을 구입하거나 다른 곳으로부터 그림을 대여하거나 혹은 시민들에게 빌려줄¹¹⁾ 경우 이에 따른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5.4 갤러리 대관 기간 및 전시 교체 주기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도서관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것은 이를 통해 시민들의 미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러한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미술작품 전시를 원하는 시민들에게 갤러리를 대관할 필요가 있다.

대관 기간은 대관에 대한 수요의 정도에 따라 정하면 된다. 즉, 대관 수요가 많다면 가급적 많은 신청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대관 기간을 짧게 해야 할 것이고, 대관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다면 그 기간을 한 달 정도로 길게 해도 될 것이다. 다만, 대관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하여 그 기간을 일주일로 짧게 하면 갤러리 운영 담당자의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최소한 2주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순천 삼산도서관은 '미술품 대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5.5 대관신청(서) 심사

갤러리 운영 목적 중의 하나는 전시관을 일반 시민 및 단체에게 대관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작품 활동 결과물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현재 조사대상 갤러리에 대한 시민들의 대관 수요가 많다. 그 결과 도서관에서는 대관 신청자를 대상으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한다.

대관 심사는 자체 심사와 외부 전문가에 의한 심사 그리고, 내외부 사람으로 구성된 심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방법이 있다. 결론적으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내부 직원과 외부 미술 전문가로 구성된 대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대관심사표를 만들어 활용하도록 한다.

대관심사의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어떤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다. 즉, 수상 경력이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신청자(작가)에게 심사시 가점을 줄 것인지, 아니면 전에 한 번도 전시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가점을 줄 것인지에 대한 평가 항목이 마련되어야 한다.

5.6 운영 매뉴얼 및 규정

도서관 갤러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 매뉴얼이나 규정을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갤러리를 시민이나 단체에 대관한다면 전시실 대관과 관련된 내용에 중점을 두어 운영 매뉴얼이나 규정을 만들어 활용하도록 한다. 운영 매뉴얼과

규정은 남산과 양천 도서관, 의정부 미술도서관 전시관과 오창전시관의 것을 참고하여 자관의 실정에 맞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운영 매뉴얼과 규정을 만들 때 대관과 관련된 내용은 남산과 양천 도서관의 매뉴얼을 주로 참고하고 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미술도서관 전시관과 오창전시관의 규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5.7 도서관 갤러리 직접 운영

위의 '3.2.1 설치 형태로 구분한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유형'에서 언급한 것처럼 교하아트센터와 오창전시관은 도서관 건물 내에 있지만 그 운영은 도서관이 아닌 외부 단체 및 기관이 하고 있다. 이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다. 아마도 이것은 이 두 갤러리가 2019년 의정부 미술도서관 개관 이전에 설립되었기 때문에 즉, 공공도서관이 갤러리를 운영하고 큐레이터를 채용한 선례가 없었기 때문에 갤러리가 도서관 건물 내에 있으면서도 도서관과 분리 운영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는 몇몇 도서관이 갤러리를 운영하고 큐레이터를 정규직 혹은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도서관이 직접 갤러리를 운영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게 됐다.

도서관이 갤러리를 직접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과 인력의 문제 그리고 역할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도서관의 역할을 확장하고, 도서관이 직접 운영한다면 도서관도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도서관의 역할 확대를 위해 갤러리 운영을 전담할 별도의 큐레이터를 채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5.8 그림 구입 및 전시

외국 일부 공공도서관의 경우 특별 기금을 이용해 그림을 직접 구입·전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도서관이 매우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갤러리를 운영하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자가 인터뷰한 국내 모 도서관의 갤러리 담당 큐레이터는 그림 구입에 대해서 '현재 그림 구입 예산도 없지만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림을 구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업무가 될 거다'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림에 대한 안목을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작품을 구입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미술 전문가도 좋은 작품을 구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2023년 4월 대구미술관이 3,000여만원을 지불하고 구입한 4점의 미술작품이 위작으로 판명되었다(대구미술관,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도 그림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다. 순천 삼산도서관은 현재 그림을 구입하고 있다. 동 도서관은 현재 320여점¹²⁾의 그림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는 지역 작가로부터 구입한 거라고 하였다. 2023년의 경우 그림 구입 예산으로 3,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동 도서관은 지역 작가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매년 20점 내외의 그림을 구입하고, 또한 조례호수도서관의 야외 갤러리에서 매달 전시되는 기획전에서 한 점씩 그림을 구입하고 있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도서관이 그림을 구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사서나 도서관 정책 결정

권자의 적극적 행정 및 업무 추진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하겠다.

6. 맺음말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시민들의 여가활동 분야와 취미가 다양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에 미술작품 감상과 그림 그리는 취미를 갖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미술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도서관 갤러리 운영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갤러리 설치·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문헌조사, 현장 사례조사, 인터뷰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례조사는 국내외 총 26개 공공도서관 갤러리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내는 12개 지자체의 15개 갤러리를 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에서 10개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다. 해외는 3개국 11개 도시의 11개 갤러리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국내 15개 도서관의 갤러리 운영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22명의 사서와 행정직원, 큐레이터와 화가를 인터뷰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10곳의 도서관 갤러리는 그 설치 형태에 따라 다섯 가지(A~E) 기본형과 기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10곳의 갤러리는 2000년 이전에 한 곳, 2000~2010년 사이에 3곳, 그리고 나머지 6곳은 2016년 이후에 설치되어 대체로 최근 7~8년 사이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2) 순천시 문화예술회관과 연향도서관이 소장하던 그림의 일부를 삼산도서관으로 이관받아 소장하고 있다고 하였음.

도서관 갤러리의 규모는 최고 484㎡부터 13㎡까지 다양하다. 갤러리는 대부분(5곳) 1층에 위치하고, 3곳은 2층에 그리고 한 곳은 3층에 자리하고 있다. 2023년 갤러리 운영 예산은 최고 3억원에서 최저 100만원까지 다양하다.

도서관 갤러리 10곳 중 6곳은 전시실을 시민들에게 대관하고 있고 4곳은 대관하지 않는다. 대관하는 6곳 중 5곳은 무료 대관이고 한 곳만 유료 대관이다. 대관 기간은 한 달부터 6일까지 다양한데, 대체로 한 주에서 두 주까지 대관하고 있다. 조사대상 10곳 중 4곳이 운영 매뉴얼이나 규정 그리고 각종 서식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한편, 외국 공공도서관의 경우 갤러리 운영에 좀 더 융통성이 있는데, 일부 갤러리는 전시 과정에서 그림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국내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운영 실태를 조사·분석한 결과에서 도출된 국내 공공도서관 갤러리 운영의 문제점과 해외 공공도서관의 갤러리 운영 현황을 토대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갤러리 설치·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들이 미술작품 감상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 내에서 최소한 한 도서관은 갤러리 공간을 마련하도록 한다. 도서관에 갤러리 설치를 위한 적절한 공간 확보가 어렵다면 도서관 내 이용자 및 자료 공간 등에 미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간이 갤러리를 만든다. 더불어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도서관을 신축할 때는 의무적으로 그 규모에 따라 일정 면적의 갤러리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 기준을 마련한다. 도서관 규모에 따른 갤러리 공간 확보 기준은

후속 연구에서 그 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장기적으로 갤러리를 좀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대관 수요가 많은 갤러리를 운영하는 사서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정부 미술도서관처럼 정규직 큐레이터를 채용하거나 혹은 순천 조례호수도서관처럼 계약직 큐레이터를 채용하는 것을 고려한다. 또는 ‘도서관 상주작가지원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화가이면서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을 일정 규모 이상의 갤러리를 운영하는 도서관에 상주토록 한다.

셋째, 도서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갤러리를 설치·운영한다면 갤러리에 공식 명칭을 붙이도록 한다. 명칭은 여러 사람들간에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한다. 즉, 시민들과 이용자들은 명칭을 통해 특정 갤러리를 쉽게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고, 사서들은 명칭을 통해 자관 갤러리의 운영과 전시를 홍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갤러리를 대관하는 사람은 갤러리의 공식 명칭이 있을 때 자신의 전시를 자신의 경력으로 대외적으로 알리고 인정받을 수 있다.

넷째, 갤러리 시설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 예산을 확보한다. 갤러리 시설은 전시과정에서 흰색의 전시벽이 오염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색되고, 핀조명이나 와이어가 망가질 수 있다. 따라서 수시로 이런 낡은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예산이 필요하다. 또한 대관 신청을 외부 전문가나 단체에게 맡긴다면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

다섯째, 갤러리는 가급적 시민들에게 대관하고, 대관 기간은 많은 시민들에게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사서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

소한 2주 이상으로 한다. 즉, 일반 시민들이 무료로 자신들의 그림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갤러리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대관한다. 그리고 전시자가 자신의 작품을 충분히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짧은 주기로 바뀌는 것에 따른 사서의 업무 가중을 줄이기 위해 갤러리 대관 주기를 최소 2주로 한다.

여섯째, 갤러리 대관 수요가 많은 경우 공정한 선발을 위해 가급적 도서관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대관심사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가 대관 신청을 심사하도록 한다. 최근에 도서관 갤러리에 대한 시민들의 대관 신청이 늘고 있다. 따라서 대관 신청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대관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일곱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갤러리 운영을

위해 운영 매뉴얼이나 규정 그리고, 관련 서식을 만들어 활용한다. 즉, 인사이드 등으로 새로운 직원이 갤러리 운영을 담당하더라도 운영과 관련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갤러리 대관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히 하는데 이들 운영 매뉴얼이나 규정 그리고 서식이 유용하다고 하겠다.

여덟째, 현재 일부 공공도서관 건물 내의 갤러리가 외부 기관 및 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제는 의정부 미술도서관 등 공공도서관이 갤러리를 직접 운영하는 여러 사례가 있는 만큼 도서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도서관이 관내 갤러리를 직접 운영할 경우 갤러리 공간을 도서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용함으로써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화하고 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국립국어원 [발행년불명]. 표준국어대사전.
출처: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 김규현 (2023. 5. 15.). 대구미술관 소장품 위작 2점 더 나와. 한겨레.
출처: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091799.html>
- 김성배 (2023. 7. 17.). 래미안 단지에서 미술작품 감상·구입, 내일신문, 15.
- 김지윤 (2021. 8. 6.). [오피니언] 박물관, 미술관, 갤러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출처: <https://www.artinsight.co.kr/news/view.php?no=55241>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행년불명].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법률 제19592].
출처: <https://www.law.go.kr/LSW/makeMain.do>
- 윤아란 (2014). 공공도서관 미술 관련 문화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비블리아학회지, 26(3), 177-206.
- 윤희윤 (2010). 공공도서관경영론. 대구: 태일사.
- 의정부 미술도서관 [발행년불명]. 비전. 출처: https://www.uilib.go.kr/art/html.do?menu_idx=2

장혜경 (2021). 사회변화에 따른 학교도서관 공간구성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사서교육전공).

조찬식, 조미아 (2011). 공공도서관의 이해와 분석. 서울: 에듀컨텐츠.

한화전, 박승환, 최무혁 (2004).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공간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0(4), 107-114.

Austin Public Library [n.d.]. Gallery. Available: <https://library.austintexas.gov/central/gallery>

Batavia Public Library (2023). Art on View. Available:

<https://bataviapubliclibrary.org/art-on-view/>

Belleville Public Library & John M. Parrott Art Gallery [n.d.]. The Parrott Gallery. Available:

<https://bellevillelibrary.ca/johnmparrottartgalleries9>

City of Melbourne Libraries [n.d.]. City Library Gallery. Available:

<https://www.melbourne.vic.gov.au/community/libraries/bookable-spaces/Pages/city-library-gallery.aspx>

Glen Rock Public Library [n.d.]. The Gallery at Glen Rock Public Library. Available:

<https://www.glenrocklibrary.org/the-gallery>

Lexington Public Library [n.d.]. Eastside Branch Gallery. Available:

<https://www.lexpublib.org/gallery/eastside-branch-gallery>

Lexington Public Library [n.d.]. Galleries & Exhibits. Available:

<https://www.lexpublib.org/gallery>

Metuchen Public Library [n.d.]. The Library Gallery. Available:

<https://www.metuchenlibrary.org/librarygallery/>

Oxford University [n.d.]. Oxford English Dictionary. Available:

<https://www.oed.com/search/dictionary/?scope=Entries&q=gallery>

Peoria Public Library [n.d.]. The Gallery. Available: <https://peoriapubliclibrary.org/the-gallery/>

Toronto Public Library [n.d.]. Art Exhibit Space. Available:

<https://www.torontopubliclibrary.ca/programs-and-classes/exhibits/art-exhibit-space.jsp>

Toronto Public Library [n.d.]. Community and Event Space Rental. Available:

<https://www.torontopubliclibrary.ca/terms-of-use/library-policies/community-and-event-space.jsp>

Toronto Public Library [n.d.]. General Guidelines for Art Exhibits Policy. Available:

<https://www.torontopubliclibrary.ca/content/programs-and-classes/exhibits/pdfs/guidelines-art-exhibits.pdf>

Watertown Free Public Library [n.d.]. Art in the Library. Available:

<https://www.watertownlib.org/154/Art-in-the-Library>
Weston Public Library [n.d.]. Art Gallery. Available:
<https://www.westonlibrary.org/1535/Art-Gallery>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Chan-Sik & Cho, Miah (2011). Understanding and Analyses of the Public Library. Seoul: Educontents.
- Han, Hwa-Jin, Park, Seung-Hwan, & Choi, Moo-Hyuk (2004). A study on the spatial composition of user space in the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0(4), 107-114.
- Jang, Hye-Gyeong (2021).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pace Composition in School Libraries Based on Social Changes. MA Thesis, Major in Librarian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 Daejin University.
- Kim, Ji-Yun (2021). [Opinion]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museum, art gallery and gallery? Available: <https://www.artinsight.co.kr/news/view.php?no=55241>
- Kim, Seong-Bae (2023, July 17). Appreciating and purchasing art works at the Raemian Apartment Complex. Naeil Sinmun Newspaper, 15.
-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n.d.]. Museum and Art Gallery Support Act [No.19592]. Available: <https://www.law.go.kr/LSW/makeMain.do>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n.d.]. Standard Korean Dictionary. Available: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
- The Art Library of Uijeongbu [n.d.]. Vision. Available: https://www.uilib.go.kr/art/html.do?menu_idx=2
- Yoon, Hee-Yoon (2010). Management of Public Libraries. Daegu: Taeilsa.
- Yun, A-Ran (2015). A study on improvement for art-related cultural program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6(3), 177-206.

